



진을종 검사

김형섭 검사



서영일 수사관



이명우 수사관



정병민 수사관



문해경 실무관

광주고검 '국민 감동상' 제정 "검찰명예 회복"

첫 수상자에 진을종 검사 등 6명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김학의)이 '국민 감동상'을 제정해 첫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수사 성과를 격려하고 이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첫 수상자는 진을종(정읍지청) 검사, 김형섭(순천지청) 검사, 서영일(전주지검) 수사관, 이명우(제주지검) 수사관, 정병민(광주지검) 수사관, 문해경(광주지검) 실무관 등 6명과 수상기관은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선정됐다.

진 검사는 지난 3월 '두 딸을 모델에서 살해한 어머니' 사건을 맡아 직접 사건 현장에서 유서 등을 확인한 뒤 살해 동기에 의문을 풀고, 어머니의 핸드폰에서 평소 알고 있던 양모씨와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후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압수한 핸드폰의 복원을 통해 양씨가 기계교의 지시를 가장, 어머니 권씨에게 장기적으로 지시를 내린 사실을 알 아내고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은 뒤 양씨를 살인방조죄로 추가 입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진 검사는 양씨를 사기와 이동복지법위반, 살인방조죄로 구속 기소했으며, 정읍지원은 최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어머니 권씨는 진 검사에게 "가정을 파탄 내고, 두 딸을 죽음으로 내몰고 양씨를 구속하는 등 억울함을 풀어줘 죽어도 여하이 없다"는 편지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 수사관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전북 임실군 양암마을 주민들이 불법적인 농지 분뇨 무단 배출을 신고해오자 직접 현장에 나가 비밀 배출 시설을 발견해 해당 농장주를 가족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

도록 했다. 이외에도 김형섭 검사는 단순 무전취식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살해사건을 과제했고, 이명우 수사관은 사건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는 민원인을 오랜 기간 설득해 이해시키는 등 검찰의 이미지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병민 수사관은 수형자의 골수이식수술을 돋고, 문해경 실무관은 민원인들에 대해 언제나 친절하게 응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지청은 상반기 대검찰청이 실시한 '클린 쿠리 조사'에서 관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첫 수상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무일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검찰은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만 진정한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손수건이 대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검찰이 꽤야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녹색성장 생생도시' 경연대회 광주 북구 국토부장관상 수상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
시진)가 최근 대통령 직속 녹색
성장위원회가 주최한 '2012 녹
색성장 생생도시'(Eco Rich
City) 경연대회에서 생태축 분
야 최우수단체로 인정, 국토해
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생생도시는 녹색성장위원회, 관계부처, 학계전문가, 생생도시 평가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 3차 경연대회까지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북구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관련 사업을 통해 베려진 도시공간을 활용해 주민의 삶 공간 재창고하고 도심 속 녹지 생태축을 구축,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연대회 광주 서구 환경부장관상 수상



광주시 서구(청장 김종식·
시진)가 최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제3회 그린스타트 네트
워크 경연대회'에서 광주·전남
에서는 유일하게 환경부장관
상을 수상했다.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국 자체체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모두 90개팀이 참가했다.

서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과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그린스타트 활동사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은행 정책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 프로그램 실천 등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녹색생활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다양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나주 성폭행 피해 학생에 온정의 손길 이어져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의 피해 학생에 대한 지역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11일부터 나주시, 굿네이버스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모금활동을 한 결과 모두 6330여만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7일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에서 3800여만원을, 나주시 공무원 650여만원, 나주영산중·고 박순용 이사장 500만원, 여명칠감(주)과 LG화학나주공장에서 각 100만원 등을 공동모금에 전달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피해 초등생과 가족들은 현재 터지역으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다"며 "온 국민의 관심과 배려 속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생계비, 심리 치료비 등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모금기간은 2013년 9월 9일까지이며 모금계좌는농협 301-0113-1504-41(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이다. 문의 전남공동모금회(061-902-68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생계비, 심리 치료비 등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모금기간은 2013년 9월 9일까지이며 모금계좌는농협 301-0113-1504-41(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이다. 문의 전남공동모금회(061-902-68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3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8.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기脈치유사 과정 무료학습=매주 목요일 10시~11시30분 두암동 문화조교연 청아멘션 내 참된 나(?) 찾기 학교(다음카페) 010-6609-9068.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 미혼모 상담=미혼으로 임신하여 무료 산전·후 진료 및 분만혜택과 상담(임양, 암유) 서비스제공, 중·고등학교 재학 중 임신한 학생미혼모의 단기위탁교육시행(광주시교육청지원) 24시간 상담기능 080-733-1313, 062-232-1313 (www.myhouse.or.kr)

▲비둘기 가정정보화 방문 무료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식 교육(컴퓨터 기초, 인터넷, 스마트폰, 자격증, 그래픽디자인 등 IT 관련 모든 교육). 대상은 등록장애인 1인 ~2~급 누구나 가능(교육비 및 교재비 전액무료)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 =입양은 가슴으로 넓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 (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역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어린이재단 전남기정워터지원 센터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동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이미용봉사·풍선아트·도서관리·각종 프로그램 진행 가능자 062-228-1365.

▲여름방학 자원봉사프로그램 참

가자=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 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학습 및 활동,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조기축구 회원=운동으로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하실분 모집. 문화초등학교 오전 6시~7시 011-641-0741(손철동)

나주시 재광 다도향우회(회장 김희국)는 최근 태풍 '볼라벤' 등으로 수해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on@kwangju.co.kr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

주 韓·日 탄자니아 대사와 협력 논의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4일 공사를 방문한 살무를 시자오나 주 일본·한국 탄자니아 대사를 만나 양국간 농업·농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살무 시자오나 대사는 농업분야 4대강 살리기와 새마금사업 등 한국의 농업 인프라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재순 사장은 "양국의 농업분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삼가 故인의 殷福을 빙니다

故 하태 순(남/72세)

故 김행 보(남/90세)

故 김순복(여/98세)

故 고아순(여/86세)

故 한영 두(남/82세)

故 이정호(남/78세)

故 김기철(남/75세)

故 김기철(여/75세)

故 김기철(여/75세)